

韓国の成人識字教科書の特性および開発現況

1. 成人識字教育の特性

言語教育は、話す、聞く、読む、書くに分かれている。大人になってハングルを学ぶ人には、韓国人としてすでに言葉を話し聞き理解しながら生きてきたので、読み書きをあとから学ぶだけである。

言語教育の 4 つの過程は互いに密接に関連しており、成人識字学習者はすでに身に着けている話すことと聞くことに、読むことと書くことを結び付けて教授するのが効率的である。

ハングルに対する理解は必須である。ハングルは誰もがやさしく身につけることができると強調するのは、成人識字学習者に、強い心理的圧迫感と挫折感を抱かせかねない。単に読み書きの繰り返しは、学習の興味をなくしてしまうことも考えられる。ハングルの特性を生かしながら、識字教育は非常に科学的で効率的に進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指導書(訳注:「小学校課程成人識字教科書」教師用指導書)は、まだ成人識字教育の方法論が確立されていない状況で、これまで現場で検証された方法を中心に構成した。

ハングルは、表音文字でありながら、音をもとにしてできた文字である。発音している通りに書けるように、子音と母音の組み合わせでできており、それぞれの音について理解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最も重要である。そして、子音と母音を組み合わせで文字が成立することを取り上げ、色々な例を挙げながら説明することで、文字の構成原理が分かるように助ける。ハングルは、文字をつくる原理が非常に科学的な組み合わせの様式であり、それを、わかりやすく教えることに重点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単純に繰り返す詰込み教育よりは、科学的なハングルの原理をわかりやすく教える授業のほうが効果的である。成人学習者は、生活者としてある程度の論理と理解力をもっている。それを、授業に活用してハングルの原理を説明していったほうがよい、

ア. 話す・聞く教育の重要性

識字教育をしていると、学習者たちは書き取りや綴り方など、書くことにこだわる傾向がある。しかし、統合的な国語教育であれば、話すと聞く教育に関してもバランスをと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本を読んで感想を話すこと、色々な人に言葉である事実を伝えること、人の話を聞いて中心内容を要約して話すことなど、実生活と密接に関連した部分で、それを積極的に授業に反映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

イ. 識字教師は指揮者

成人識字学習者は十人十色であ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成長環境や字を学ぶ目的などは、似ているようで、少しずつ異なり、学習能力もバラバラである。授業に対するニーズもそれぞれ違うことも多い。識字教師は、授業の基準を中間程度より下の学習者を中心に進め、多様なニーズに適切に対応していく知恵も必要である。明確に学習能力が落ちる学習者のための補講、順調に学習が進んでいる学習者のための深化学習の案内など、全体を一つのものとしてまとめていく能力が必要である。

ウ. 開かれた教育

識字教育は学ぶ対象によって、進み具合や教科内容の伝え方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年齢を考慮すべきであり、学習者の特性に合わせて、踊りや歌、軽い体操などを授業に取り入れることができる。学校で取り扱う文法用語よりは、やさしくて慣れている生活の中の事例を使って、授業を進めていく必要がある。

教科書は、一つの基礎となる材料である。状況に応じて、教師は学習資料を新しく作成して進めることも可能で、内容を再構成して再活用することもできる。

エ. 文字以上の教育

識字教育は、単に文字が分かることに目標があるわけではない。文字が分からなかったがゆえに経験せざるを得なかった痛みを和らげ、心の中の悔しさを治癒するプロセスでもあり、文字を身に着け、私を理解し、社会と文化を理解し、自分の人生の主人公として生きていけるように、自信を持たせ、訓練していくプロセスでもある。非識字者は、すでに新しいことを受け入れる方法が定着しているので、文字も、一つのイメージ（絵）として捉えようとする傾向がある。従って、最初の段階では、その枠組みを破り、文字というのが、子音と母音の組み合わせであることが分かるようにすることが、非常に重要である。ある程度、文字が分かったあとは、自分を表現し、考えや気持ちを文章で書いてみる訓練を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綴り方にこだわらず、まずは音の通りに書いても、とりあえず書けるという自信をもとに、少しずつ韓国語の規則（語法）を学んでいったほうがいい。今までの人生の物語や、家族又は兄弟姉妹にしたい話を文章として書いてみる。言葉と文字を通じて、自分の人生を受け入れるようにし、関心・興味の領域を、自分を囲んでいる環境や体系へと広げていくことができる。学習者と教授者は、教えることと学ぶことに分けて区別するよりは、互いに分かち合い、成長していく関係への転換が必要である。今まで暮らしの土台ともいえる基礎教育が受けられなかった人々と一緒に拓いていく教育平等社会は、だからこそ、非常に重要なことである。識字教育は、いな新しい跳躍の段階に差し掛かっている。良い教育のモデルが含まれている識字教育は、だからこそ、文字教育以上の教育であるといえよう。

2. 成人識字教科書の特性

成人識字教育に対する支援として、従来の児童生徒向けの教科書ではなく、成人識字教科書の開発は、子どもの学習者とは異なる成人学習者、特に、非識字の成人学習者に対する学習に適した教材開発の要求の高まりと、識字教育の人的・物的資源が不十分な状態の中で標準化した教育課程を通して教育運営の体系性を確保する必要性、そして、成人識字者の学習性と認証体制の確立のための基準として、その必要性が提起された。従って、成人識字の現場専門家と学界、教科書開発専門家の意見と成人識字教育現場のニーズ調査に基づき、教科書の基本体系と内容が完成された。

まず、識字教育教科書は、従来の小学校教科書とは違う3段階のものとして開発した。つまり、小学校1・2年生に該当する「望みの木」、3・4年生に該当する「学びの木」、5・6年生に該当する「知恵の木」を開発した。教科書を編纂するための授業時数は、640時間に決められ、そのための授業週は36週であり、10、20、30、40週には、裁量及び特別活動時間として構成した。各段階別の授業時数は、次のとおりである。

<段階別の授業時数>

段階	1日の授業時数	週別の授業時数	総時数
望みの木（1巻～4巻）	2時間	週2回、4時間	40週、総160時間
学びの木（5巻～8巻）	2時間	週2回、6時間	40週、総240時間
知恵の木（9巻～12巻）	2時間	週2回、6時間	40週、総240時間

次に、教科書開発の形は、すべての教科を統合して1冊の統合教科書として開発した。単元の構成は、大単元と小単元に分け、各段階別に4つの大単元を配置して、大単元別に分冊にした。つまり、一つの大単元は10週間の分量の長さであり、一つの大単元を1冊として開発した。各巻には、小単元だけを並べ、各小単元は2時間分（1日の授業分量）を基準に、5ページを基準に開発した。10週間の分量（毎日2時間ずつ週2～3回出席）で、それぞれ教科書1巻とすれば、「望みの木」（1巻～4巻）20単元、「学びの木」（5巻～8巻）、「知恵の木」（9巻～12巻）がそれぞれ30単元となる。裁量及び特別活動は、各教室と地域の特性を反映して、自律的に多様な活動をするか、内容が予定通りに進んでいない場合は、補講の時間として使えるように開発した。

最後に、成人識字教科書の内容構成は、全国共通の必須内容を中心に構成し、段階別に選択内容が一部含まれるように、開発した。また、すべての教科を統合した国語科を中心に、段階別に教科の連携性が明確となる社会、科学、数学、英語、音楽、美術、漢字などで構成した。

＜段階別教科の統合の割合及び科目構成＞

段階	識字教科 (%)	統合教科 (%)
望みの木 (1巻～4巻)	87	数学 13
学びの木 (5巻～8巻)	79	数学 11、英語 7、音楽／美術 3
知恵の木 (9巻～12巻)	57	数学 12、英語 7、社会 11、科学 6、漢字／音楽／美術 7

「望みの木」 (1巻～4巻)

小学校 1・2年生



「学びの木」 (5巻～8巻)

小学校 3・4年生



「知恵の木」 (9巻～12巻)

小学校 5・6年生



出展：国家平生教育振興院「小学校課程成人識字教科書」教師用指導書.

3. 教授・学習方法と評価

1) 教授・学習方法

ア. 段階構成に基づく授業運営

一般的に、授業のプロセスは、「導入」「展開」「まとめ」の3段階で構成される。

段階	導入	展開	まとめ
1 段階	- 学習目標の確認 - 動機の誘発	- 内容把握と語彙の学習 - 単元の整理確認 - 関連した学習活動	- 評価 - 関連内容の学習活動
2 段階		- 本文を読む、単語学習 - 内容把握（事実確認、情報把握）	- 学んだ内容の喚起 - 学習目標と関連する類似した活動を追加する - 課題を与える
3 段階		- 内容把握と語彙の学習 - 概念整理（教授・学習のポイント） - 単元の整理確認 - 関連した学習活動	- 評価 - 深化内容の提示 - 課題を与える

・「導入」は、学習目標と関連した質問によって、学習者自らの先行経験を思い浮かばせ、学習者の関心と学習動機を誘発する段階である。学習目標を提示し、関連した絵で、関心を導き出すとともに、自然に授業に集中できるようにする。

・「展開」では、学習目標を地の文と活用演習を通して学ぶ段階である。従って、本文を読んで内容を把握するか、粗筋とテーマを把握することが、一つ目の要素である。また、必要な国語の文法知識を、例をもって学び、本文の内容と文法知識を実際に活用してみるか、練習してみるプロセスを経る。

・「まとめ」の段階では、本日学んだ内容を喚起して学習内容をもう一度周知させるか、学習目標と関連した内容と類似した活動を追加して、学習内容をより深めるようにする。また、学習者自らが学習内容を身につけるように、課題を与えたりもする。

前の単元と後の単元が文法的につながりがある場合には、導入のところで前の時間で学習した内容を質問するか、もう一度簡単に整理することも必要である。

各段階ごとに地域や学習者の特性など、様々なことを考慮して授業を進めていく。

4. 成人識字教科書の開発現況

1) 教育部・国家平生教育振興院による成人識字教科書の開発

- ・ 小学校課程 1 段階～3 段階（段階別 4 巻ずつ 12 巻）
ワークブック・教師用の指導書 6 巻、全 18 巻
- ・ 中学校課程 1 年生～3 年生（国語、英語、数学、社会、化学、英語 5 巻ずつ 15 巻）
教師用の指導書 3 巻、全 18 巻
- ・ 識字学習者の基礎生活能力の涵養のための生活識字教科書 3 巻（金融識字教育、交通安全識字）など、全 38 巻

< 教育部の識字教科書開発現況 >

課程名	教科書構成		ワークブック	教師用 指導書	合計
	レベル	巻数			
小学校課程	1～2 年生（望みの木）	4 巻	1 巻	1 巻	6 巻
	3～4 年生（学びの木）	4 巻	1 巻	1 巻	6 巻
	5～6 年生（知恵の木）	4 巻	1 巻	1 巻	6 巻
中学校課程	1 年生（国語・数学・社会・科学・英語）	5 巻	—	1 巻	6 巻
	2 年生（国語・数学・社会・科学・英語）	5 巻	—	1 巻	6 巻
	3 年生（国語・数学・社会・科学・英語）	5 巻	—	1 巻	6 巻
生活識字	金融識字（ボイスフィッシング予防など）	1 巻	—	—	1 巻
	交通安全識字（安全な歩行など）	1 巻	—	—	1 巻
	情報識字（SMS 活用方法など）	1 巻	—	—	1 巻

出展：国家平生教育振興院「小学校課程成人識字教科書」教師用指導書。

2) 民間の識字教育機関による独自の開発教科書

- ・ 小学校課程識字教科書（国語、数学、英語、漢字など）
 - 初・中・上級課程で開発
- ・ 英語、漢字、数学の副教材
 - アルファベット、基礎英語、漢字などの副教材
- ・ 高齢者のためのフォニックス教科書開発
- ・ 作文手引書、人権・環境・人文学教科書
- ・ 地域歴史教科書
- ・ その他
 - 大人のための絵本開発

＜民間の識字教育機関の識字教科書開発現況＞

課程名	教科書の構成及び内容		その他
小学校課程	初級	ハングルの子・母音の組み合わせ原理、バッチム、基本文章	教室ごと に独自 制作
	中級	多様な形式の文章を読む、短い文章の理解、自分の考えと感じ方を短い文章で書いてみる	
	上級	中級課程の深化学習、多様な文章を読んで表現する	
英語・漢字・数学 副教材	基礎英語	成人識字学習者のためのフォニックス教材（アルファベット、フォニックス、単語）、基礎文法教材	
	漢字	基礎漢字、四字熟語	
	基礎数学	数式計算、数の大きさ、生活に必要な広さ・体積の測定単位	
作文手引書 人権、女性、環境、 人文学教材	作文手引書	成人学習者の詩、自伝を書くための手引書	
	人権・環境・女性	男女平等、環境と生活、自由と県土など、民主市民教育課程	
	人文学教材	成人学習者のための治癒の人文学教材	
	哲学	タルムード、人生を振り返り自分の視点をもつ	
地域の歴史教材	歴史	地域社会の歴史と文化を理解するための地域別の歴史教科書の開発	
絵本教材	世代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ための絵本	成人学習者の人生を素材とした絵本を開発、孫世代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習者の読書教材	

翻訳：金侖貞（首都大学東京）

한국의 성인 문해 교과서 특성 및 개발현황

1. 성인 문해 교육의 특성

언어 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뉘며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분들은 한국인으로 우리말을 이미 말하고 듣고 이해하며 살아왔다. 다만, 읽기와 쓰기를 나중에 배울 따름이다.

언어 교육의 4가지 과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인문해 학습자는 이미 잘 하고 있는 말하기와 듣기에 읽기와 쓰기를 연계하여 교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깨우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때로는 성인 문해 학습자에게는 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좌절감을 불러 올 수도 있다. 단순히 읽기와 쓰기의 반복 수업은 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한글의 특성을 살린다면 문해 교육은 매우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글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성인 학습자에 맞는 교수법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 지도서는 아직 성인 문해 교육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검증되었던 방법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한글은 소리글자이면서 나아가 소리바탕글자이다. 말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닿소리와 흘소리로 짜여 있으며 각각의 소릿값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닿소리와 흘소리가 만나 글자가 이루어짐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글자의 짜임새를 깨우치도록 돕는다. 한글은 제자원리가 매우 과학적인 결합 양식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순 반복적인 주입식 교수 방법보다는 과학적인 한글 원리를 풀어서 하는 수업이 효과적이다. 성인 학습자는 생활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논리와 이해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수업에 활용하여 한글 원리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좋다.

가. 말하기,듣기 교육의 중요성

문해 교육을 하다보면 학습자들은 받아쓰기와 받침 등 쓰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통합적인 국어 교육이라면 말하기와 듣기 교육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책을 읽고 느낌 말하기, 여러 사람에게 말로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남의 말을 듣고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기 등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6p

나. 문해 교사는 지휘자

성인 문해 학습자는 10인 10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라온 환경이나 글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 등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르며 학습 능력에서도 차이가 심한 편이다. 수업에 대한 요구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문해 교사는 눈높이를 중간 정도보다 떨어지는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며, 다양한 요구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저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 잘 하는 학생을 위한 심화 학습 안내 등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 열린 교육

문해 교육은 배우는 대상에 따라 진도나 교과 내용의 전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연령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율동과 노래, 가벼운 체조 등을 수업에 접목시킬 수 있다. 학교 문법에 따르는 문법 용어보다는 쉽고 다가가기 쉬운 생활 속의 예를 가지고 수업을 이끌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상황에 따라 교사가 학습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진행할 수도 있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라. 글자 이상의 교육

문해 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깨우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글을 몰라서 겪었을 아픔을 풀어내고 마음에 맺힌 못 배운 한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글자를 익혀 나를 이해하고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 주고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비문해자는 이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굳어져 있기에 글자도 하나의 이미지[그림]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첫 단계에서는 이를 깨고 글자라는 것이 닿소리와 홀소리라는 소릿값의 합임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글자를 깨친 다음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옮겨보는 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맞춤법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은 소리 나는 대로 쓰더라도 적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서히 우리말 규칙[어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살아온 이야기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옮겨보도록 한다. 살아온 이야기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옮겨보도록 한다. 말과 글을 통해 자기 삶을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하며 관심의 영역을 자기를 둘러싼 여러 환경과 체계로 넓혀갈 수 있다. 학습자와 교수자는 가르침과 배움으로 따로 구별되기보다는 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껏 삶의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과 함께 열어나가는 교육 평등 세상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문해 교육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바른 교육의 모범이 들어있는 문해 교육은 그래서 글자 교육 이상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7p

2. 성인 문해 교과서의 특성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서 기존의 아동 교과서가 아닌 성인 문해 교과서에 대한 개발은 아동 학습자와 차별화 된 성인 학습자, 특히 성인 비문해 학습자의 학습에 적합한 독자적인 교재 개발의 요구 증대와, 문해 교육의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 그리고 성인 문해 학습성과 인증 체제 수립을 위한 기본 준거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성인 문해 현장 전문가와 하계, 교과서 개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성인 문해 교육 현장의 요구 조사를 통해 교과서의 기본 체계와 내용이 완성되었다.

먼저, 문해 교육 교과서는 기존의 초등 교과서와 달리 총 3단계로 개발하였다.

즉,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소망의 나무”, 3,4학년에 해당하는 “배움의 나무”, 5,6학년에 해당하는 “지혜의 나무”를 개발하였다. 교과서 편찬을 위한 총 수업 시수는 640시간으로 책정되었으며 교과서 개발을 위한 수업 주수는 총 36주로, 10, 20, 30, 40주 차시는 재량 및 특별활동 시간으로 기관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진도가 뒤쳐진 경우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단계별 수업 시수는 다음과 같다.

<단계별 수업 시수>

단계	일별 수업 시수	주별 수업 시수	총 시수
소망의 나무(1권~4권)	2시간	주 2회, 4시간	40주, 총 160시간
배움의 나무(5권~8권)	2시간	주 3회, 6시간	40주, 총 240시간
지혜의 나무(9권~12권)	2시간	주 3회, 6시간	40주, 총 240시간

다음으로 교과서 개발의 형태는 전 교과를 통합하여 1권의 통합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단원 구성은 대단원과 소단원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4개의 대단원을 배치하여, 대단원별로 분책하였다. 즉, 하나의 대단원은 10주 분량의 길이이며, 하나의 대단원을 한 권으로 개발하였다. 각 권내에서는 소단원만을 나열하되, 각 소단원은 2차시(하루 수업 분량)를 기준으로 하여 5쪽 내외를 기준으로 개발하였다. 10주 분량(매일 2시간씩 주 2~3회 출석)으로 교과서를 낱권으로 할 때, 각 권 별 소단원의 수는 “소망의 나무”(1권~4권) 20개, “배움의 나무”(5권~8권), “지혜의 나무”(9권~12권) 각각 30개가 된다. 재량 및 특별활동은 각 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진도가 뒤쳐진 경우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 문해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전국 공통의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단계별로 선택 내용을 일부 포함시켜 개발하였다. 또, 전 교과를 통합한 국어과를 중심으로 하여 단계별로 교과간의 연계성이 두드러지는 사회, 과학, 수학, 영어, 음악, 미술, 한자 등을 구성하였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8p

<단계별 교과 통합 비율 및 과목 구성>

단계	문해 교과(%)	통합 교과(%)
소망의 나무(1권~4권)	87	수학 13
배움의 나무(5권~8권)	79	수학 11, 영어 7, 음악/미술 3
지혜의 나무(9권~12권)	57	수학 12, 영어 7, 사회 11, 과학 6, 한자/음악/미술 7

소망의 나무(1권~4권)
초등1~2학년



배움의 나무(1권~4권)
초등3~4학년



지혜의 나무(1권~4권)
초등5~6학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3.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1) 교수·학습 방법

가. 단계 구성에 따른 수업 운영

일반적으로 수업의 과정은 ‘도입’, ‘전개’, ‘마무리’의 3단계로 구성된다.

단계/내용	도입	전개	마무리
1단계	-학습목표 확인 -동기유발	-내용파악 및 어휘학습 -단원 정리 확인 -연계 학습활동	-평가 -관련 내용 학습활동
2단계		-본문읽기, 낱말 학습 -내용파악(사실확인, 정보파악)	-배운내용 환기 -학습목표 관련 유사 활동추가 -과제 부여
3단계		-내용파악 및 어휘학습 -개념정리(교수, 학습 포인트) -단원 정리 확인 -연계 학습 활동	-평가 -심화내용 제시 -과제 부여

- ‘도입’은 학습목표와 관련된 질문으로 학습자 스스로의 선행 경험을 떠올려 학습자의 관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단계이다.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된 그림으로 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수업에 집중하게 된다.

- ‘전개’는 학습 목표를 지문과 활용 연습을 통해 익히는 단계이다. 따라서 본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거나 줄거리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이다. 또 필요한 국어 문법 지식을 사례를 통해 익히고 본문의 내용과 문법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거나 연습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 ‘마무리’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환기시켜 학습 내용을 한 번 더 주지시키거나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의 유사활동을 추가하여 학습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기도 한다.

앞 단원과 뒤 단원이 문법적 연계가 될 때에는 도입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각 단계별로 지역특성, 학습자특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수업 운영을 한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25p

4. 성인 문해 교과서 개발 현황

1)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 문해교과서 개발

- 초등과정 1단계~3단계 (단계별 4권씩 12권)
워크북·교사용 지도서 6권, 총18권
- 중학교 과정 1학년~3학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영어 5권씩 15권)
교사용 지도서 3권, 총18권
- 문해학습자의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생활문해 교과서 3권
(금융문해교육, 교통안전문해) 등 총 38권

< 교육부 문해 교과서 개발 현황 >

과정명	교과서 구성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계
	수준	권수			
초등과정	1~2학년(소망의 나무)	4권	1권	1권	6권
	3~4학년(배움의 나무)	4권	1권	1권	6권
	5~6학년(지혜의 나무)	4권	1권	1권	6권
중학교과정	1학년(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5권	-	1권	6권
	2학년(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5권	-	1권	6권
	3학년(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5권	-	1권	6권
생활문해	금융문해(금융사기예방 등)	1권	-	-	1권
	교통안전문해(안전한 보행 등)	1권	-	-	1권
	정보문해(메신저 활용법 등)	1권	-	-	1권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2) 민간 문해교육 기관 자체 개발 교과서

- 초등과정 문해교과서(국어/수학/영어/한자 등)
 - 초, 중, 고급 과정으로 개발
- 영어,한자,수학 부교재
 - 알파벳, 기초영어, 한자 등의 부교재
 - 어르신을 위한 파닉스 교과서 개발
- 글쓰기 안내서, 인권,환경,인문학 교과서
- 지역 역사 교과서
- 기타
 - 어르신을 위한 동화책 개발

<민간 문해교육기관 문해교과서 개발 현황 >

과정명	교과서 구성 및 내용		기타
초등과정	초급	한글 자·모음 합성원리 받침, 기본문장	기관별 자체 제작
	중급	다양한 형식의 글 읽기, 짧은 글 이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짧은 글쓰기	
	고급	중급과정의 심화학습, 다양한 글 읽고 표현하기	
영어, 한자, 수학 부교재	기초영어	성인문해학습자를 위한 파닉스교재 (알파벳, 파닉스, 단어) 기초문법교재	
	한자	기초한자, 사자성어	
	기초 수학	사칙연산, 수의 자릿값, 생활에 필요한 넓이, 부피 측정단위	
글쓰기 안내서 인권, 여성, 환경, 인문학 교재	글쓰기 안내서	성인학습자 시, 자서전 글쓰기 안내서	
	인권, 환경, 여성	양성평등, 환경과 생활, 자유와 권리 등 민주시민교육과정	
	인문학 교재	성인학습자를 위한 치유인문학 교재	
	철학	탈무드 우화, 삶을 돌아보고 자기생각 만들기	
지역 역사교재	역사	지역사회 역사와 문화이해를 돕는 지역별 역사교과서 개발	
그림동화 교재	세대 소통을 위한 동화	성인학습자의 삶을 소재로 동화책을 개발, 손자손녀 세대와의 소통, 학습자 읽기 교재	